

안녕하십니까? 미한국상공회의소(KOCHAM) 사무국입니다.
아래 경제 기사와 보고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(기사 아래 파란색 버튼을 누르시면 기사 원문을 보실 수 있습니다)

[미국 경제]

- Bloomberg: 예상치 부합한 11월 미 물가...12월 금리 인하
- WSJ: ADB, “트럼프 정책으로 아시아 경제 리스크 발생”

[미국 금융]

- FinanceYahoo: 대형 은행들 “트럼프 들어서면서 내년에 긍정적인 성장”
- Bloomberg: 국채 상승...인플레 수치로 금리 인하 베팅
- WSJ: 시장의 운명은 트럼프의 달러 정책에 달렸다

[트럼프 행정부]

- FinanceYahoo: 연준 금리 12월 금리 인하 후 내년에 속도 둔화

[부동산]

- CNBC: 모기지 채용자 수요 27% 증가

[오일]

- Bloomberg: OPEC, 2024년 세계 석유 전망 대폭 하향

[비즈니스와 기업 동향]

- FinanceYahoo: 메이시스, 3분기 실적 발표에서 매출 감소
- FinanceYahoo: US 스틸 주가 하락...바이든의 일본제철 인수 차단 때문
- WSJ: Inditex, 저가 경쟁 속 높은 매출 발표
- FinanceYahoo: 애플, 아이폰에 챗GPT 추가한다
- CNBC: 유럽 자동차 업계, 내년도 힘들다

[보고서]

- 신한은행 아메리카: 일일 금융 시장 정보

[미국 경제]

Bloomberg: US Inflation in Line With Forecasts Solidifies Bets on Fed Cut

예상치 부합한 11월 미 물가...12월 금리 인하

- 11월 미 소비자물가가 예상치와 부합되는 건조한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. 다음 주에 연준은 금리를 인하할 것으로 보인다.
- 연방 노동통계청의 오늘 수요일 발표에 따르면 식품과 에너지 비용 등 변동성이 큰 내역을 제외한 핵심 소비자 물가지수가 4개월 연속해서 0.3% 상승했다. 작년에는 3.3% 상승했다.
- 이코노미스트들에 따르면 핵심 물가지수는 전반적인 소비자물가지수에 비해 인플레 추세를 더 잘 반영하고 있다. 11월 전체적인 물가는 전월에 비해 0.3% 상승했고, 작년 동월에 비해 2.7% 상승했다.

Bloomberg 기사

WSJ: Potential U.S. Policy Changes Pose Risks to Asian Economies, ADB Says
ADB, “트럼프 정책으로 아시아 경제 리스크 발생”

- 아시아 경제가 올해와 내년에 계속 성장할 것으로 보이지만, 모멘텀은 약화되고 트럼프 행정부의 향후 정책 변화가 이 지역에 주요한 리스크가 될 것으로 아시아개발은행인 ADB는 전망했다.
- 이 기관의 올해 12월 전망치와 관련해서는 아시아 성장이 견고하지만, 소비와 지출이 약화되면서 3분기에 성장세 둔화로 올해 들어 지금까지 성장률이 5.0%로 줄었다.
- 중국, 한국, 인도 등 46개국으로 이뤄진 아시아 개발 국가들의 연간 성장률은 9월에는 5.0%, 작년에는 5.1% 전망했으나, 현재 4.9%로 둔화될 것으로 전망했다.
- 지역별 차이도 보였다. 인도와 중국은 모멘텀을 잃을 것으로 보이는 반면에 동남아시아 연합 국가들은 놀라울 정도로 강세를 보이고 있다.

WSJ 기사

[미국 금융]

FinancYahoo: Big banks find many 'reasons to be optimistic about 2025' as Trump 2.0 nears
대형 은행들 “트럼프 들어서면서 내년에 긍정적인 성장”

- JP모건, 시티뱅크 등 주요 은행 책임자들은 내년에 낙관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. 향후 이자율 감소와 투자뱅킹과 거래 매출에서 성장을 기대하고 있기 때문이다.
- JP모건에 따르면 긍정적인 이자율 전망으로 내년도 순이자 소득을 상향 조정했으며, 4분기에 투자뱅킹서비스금액이 45%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다.
- 씨티그룹도 투자은행 서비스 요금이 25~30% 성장할 것으로 보고 있으며, PNC 책임자는 은행의 계획이 지금까지 중에 가장 낙관적이라고 말했다.
- 은행들은 트럼프가 들어서면서 자본 관련 규정 등이 완화된다고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. 하지만 트럼프 정책이 이자율과 인플레이 관련 경제에 영향을 어떻게 미칠지 신중한 입장도 보이고 있다.

FinanceYahoo 기사

Bloomberg: Treasuries Rise as Traders Boost Bets on a Fed Cut This Month

국채 상승...인플레 수치로 금리 인하 베팅

- 오늘 발표된 지난달 물가가 예상치만큼 빠르게 성장한다고 발표된 직후 투자자들이 다음 주에 금리가 인하될 것에 베팅하면서 채권 가격은 상승했다.
- 연준 금리 정책에 가장 민감한 2년물 국채 금리는 5베이시스 포인트 감소한 4.10%에서 거래되면서 이전 상승률을 반납했다.
- 투자자들은 연준의 금리가 오늘 발표 전의 0.2% 포인트에서 0.22% 포인트를 반영하고 있다.
- 시장은 오는 12월 18일 0.25%의 금리 인하 가능성을 90%로 보고 있다.

Bloomberg 기사

WSJ: The Fate of Markets Rests on Trump's Dollar Policy

시장의 운명은 트럼프의 달러 정책에 달렸다

- 트럼프는 미 제조업의 부흥을 위해 달러 약세를 천명하고 있다.
- 그러나 시장은 트럼프의 정책들이 오히려 달러 파워를 강화하는데 베팅하고 있다. 달러는 트럼프의 정책이 가격에 반영되기 시작한 지난 10월 초 이래로 선진국들 통화 대비해 5% 상승했고, 개발도상국 대비해서는 4% 상승했다.
- 분명한 점은 달러는 국제 결제를 위한 가격 결정에 영향을 줄 뿐 아니라 거의 모든 면에서 증시에 영향을 주는 글로벌 기축 통화라는 점이다.
- 이미 달러는 강세를 보이고 있다. 트럼프의 감세 정책 이전에 이미 미국 경제는 강세를 보이고 있다. 반면에 다른 국가들의 경우 트럼프의 추가 관세 시행 전부터 이미 어려움을 겪고 있다.
- 달러는 다른 국가들에서의 수요 증가를 일으키는 지위, 즉 달러의 전 세계 기축 통화 지위를 보호 받기를 원하고 있다.

WSJ 기사

[트럼프 행정부]

Financeyahoo: A cautious Fed on track for one last 2024 cut followed by a 'slowing down' in 2025

연준 금리 12월 금리 인하 후 내년에 속도 둔화

- 연준이 이번 12월에 올해 마지막 금리 인하 후, 내년도에는 금리 인하에 신중할 것으로 보인다. 지속적으로 물가 압력 때문이다.

- 전 클리블랜드 연준 총재인 Loretta Mester는 연준이 다음 주에는 금리를 내리겠지만, 내년에 4차례 금리 인하를 한다는 당초 예상을 2~3차례로 바꿨다.
- 오늘 발표된 물가지수가 연간 2.7%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나 이코노미스트들 예상에 부합했지만, 핵심 물가지수는 작년에 비해 3.3% 높아졌다.
- 현재 연준 전문가들은 강한 인플레이에 우려하고 있지만, 리치먼드 연준 총재 Tom Barkin 같은 이들은 내년에 계속 인플레이가 내릴 것으로 보고 있다.

FinanceYahoo 기사

[부동산]

CNBC: Mortgage refinance demand surges 27%, as interest rates drop for the third straight week 모기지 재융자 수요 27% 증가

- 지난주 모기지율이 3주 연속 하락했다. 대출 잔액 76만6천5백50불 이하 30년 고정금리 모기지율은 6.69%에서 6.67%로 하락했으며, 계약금 20% 대출의 경우 0.67%에서 0.66%로 하락했다.
- 모기지 은행 협회에 따르면 총 모기지 수요는 5.4% 증가했다. 모기지 재융자 신청은 전주보다 27% 급증했으며, 작년 같은 기간에 비해 42% 증가했다. 또한 전체 신청 중 38.7%에서 46.8%로 증가했다.
- MBA 이코노미스트 Joel Kan은 “지난 3개월 동안 한 주를 제외하고 모두 주택 수요가 상승세였다. 점진적인 수요 증가와 주택 판매 재고가 구매 활동을 뒷받침하고 있다.”라고 말했다.

CNBC 기사

[오일]

Bloomberg: OPEC Makes Deepest Cut Yet to 2024 World Oil Demand Forecast OPEC, 2024년 세계 석유 전망 대폭 하향

- OPEC이 올해와 내년 석유 수요 증가율 전망을 대폭 하향 조정했다. 5개월 연속 하향 조정이다. OPEC은 최근 회의에서 증산 계획을 세 번째 연기했다.
- OPEC의 월간 보고서에 따르면 2024년 석유 수요 증가 전망은 하루 21만 배럴씩 하향 조정된 하루 160만 배럴이다. OPEC은 악화된 시장 상황에 7월 이후 전망치를 27% 하향 조정했다.
- 유가는 7월 초 이후 17% 하락했다. 중국 수요 약세와 미주 지역의 석유 공급 증가 때문이다. 브렌트유 선물은 배럴당 73달러에 거래되고 있다.

Bloomberg 기사

[비즈니스와 기업 동향]**FinanceYahoo: Macy's delayed Q3 results show sales decline as its stock drops****메이시스, 3분기 실적 발표에서 매출 감소**

- 메이시스는 오늘 수요일, 3분기 실적을 발표했다. 원래 발표 예정일은 1억 5천1백만 달러의 비용을 숨긴 직원 때문에 연기됐었다.
- 메이시스의 조정 주당 순이익은 0.04달러로, 월스트리트 예상치인 0.03달러보다 높았다. 순매출은 47억4천만 달러로 작년보다 2.4% 감소했다. 월스트리트 예상치는 47억5천만 달러였다.
- 메이시스는 반등을 위해 일부 매장 문을 닫고 연간 수익 전망을 낮췄다. 현재 주당 이익은 2.25달러에서 2.50달러 사이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. 이전 전망은 2.34달러에서 2.69달러 사이였다.

FinanceYahoo 기사

FinanceYahoo: US Steel drops as Biden set to block Nippon Steel deal
US 스틸 주가 하락...바이든의 일본제철 인수 차단 때문

- 바이든 대통령이 국가 안보를 이유로 일본제철의 US 스틸 인수를 차단할 계획이다. US 스틸은 미국 내에서 소유되고 운영되어야 한다는 것이다.
- 외국인 투자 심사(CFIUS) 절차는 현재 절차적 조치로 연장되었다. 이후 CFIUS가 추천 조치를 제안하면 대통령은 15일 이내 결정을 발표해야 한다.
- 차기 대통령인 트럼프 당선인도 이번 인수 건에 대해 반대 의사를 표했다. 트럼프의 대선 경쟁 상대였던 카밀라 해리스 부통령도 선거 운동 기간 반대 의사를 표했다. 연방 철강 노조(United Steelworkers Union)도 반대의사를 표했다.
- US 스틸은 이번 인수합병이 무산되면 본사를 펜실베이니아 밖으로 옮기고 일부 공장을 폐쇄해야 한다고 말했다. 일본제철은 “바이든 대통령의 거래 차단 시도는 정치적 이익에 따른 판단이다. 부적절하다.”라고 말했다.

FinanceYahoo 기사

WSJ: Zara Owner Inditex Posts Higher Sales Amid Fierce Low-Cost Competition**Inditex, 저가 경쟁 속 높은 매출 발표**

- ZARA의 모기업 Inditex가 Temu와 Shein과 같은 저가 소매업체와의 경쟁 속에서 마지막 분기 초 매출이 증가했다고 발표했다. Inditex는 11월 1일부터 12월 9일까지 매출이 작년 같은 기간보다 9% 증가했다고 밝혔다.
- Quilter Cheviot의 분석가 Mamta Valechha는 “날씨가 소비자 지갑 사정이 좋지 않은 것을 고려할 때 매출 증가는 긍정적이다. 하지만 매출 증가율은 예상치인 9~10%에 미치지 못했다.”라고 말했다. 현재 Inditex의 매출 증가율은 이번 회계연도 첫 9개월 동안 기록한 10.5%보다 낮다.
- 올해 초 Inditex는 물류 역량 확장, 물리적 공간과 디지털 공간 간소화를 통해 저가 소매업체와의 경쟁에서 우위를 점할 것이라고 말했다. Inditex는 이전 회계연도에 달성한 57.8%에서 50베이시스 포인트 내외의 안정적인 매출 총이익률을 목표로 하고 있다.

WSJ 기사

FinaceYahoo: Apple adds ChatGPT to iPhones with latest Apple Intelligence update 애플, 아이폰에 챗GPT 추가한다

- 애플이 드디어 애플의 지능 업데이트 일환으로 아이폰과 아이패드, Mac에 챗 GPT를 도입한다.
- 오늘 수요일에 운영시스템 iOS 18.2, iPad OS 18.2, mac OS 15.2에서 사용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에는 아이폰 16 카메라 컨트롤 기능과 이미지 생성 기술과 관련 비주얼 지능 기능을 도입된다.
- 또한 향후 수개월 동안 인공지능과 관련된 개선 프로그램을 제공할 예정이다.

FinanceYahoo 기사

CNBC: Auto giants endured a torrid time of it this year — and few expect 2025 to be much better 유럽 자동차 업계, 내년도 힘들다

- 유럽 자동차 업계가 어려움을 겪고 있다. 저가 모델 부족, 느린 충전소 보급, 중국과의 경쟁, 탄소 규제, 미국의 관세 전망 등 전기차 전환에 어려움이 많다. 이에 따라 분석가들은 내년에도 자동차 업계가 힘들 것이라고 예상한다.
- 탄소 배출의 경우 내년부터 EU에서 판매되는 신차의 평균 배출량 상한선은 킬로당 93.6그램의 이산화탄소 배출이 될 예정이다. 2021년 110.1g/km에서 15% 낮아진 것이다.
- 유럽 자동차 제조업체 협회(ACEA)는 11월 말 전기차 수요 부진과 경제 악화를 이유로 2025년 규정 준수 비용 완화를 비롯한 지원 초지가 필요하다고 말했다.

- 하지만 교통 및 환경부의 Poliscanova는 “규제 완화는 없다. 우리는 이미 전기차 분야에서 뒤처져 있다. 당장은 손해를 보더라도 이산화탄소 규제가 자동차 업계가 전기차 목표를 향해 달려 나갈 수 있도록 만들 것이다.”라고 말했다.

CNBC 기사

[보고서]

**모건스탠리 "이달 이어 내년 1월에도 연준 금리인하" 전망
투자자 베팅도 '연속 인하'로 몰려**

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(Fed·연준)가 이번 달에 이어 내년 1월에도 금리를 인하할 것으로 미국 대형 투자은행 모건스탠리가 예측하면서 선물 및 스와프 시장에서 이에 대한 베팅도 크게 늘었다.

10일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관련 시장에서 트레이더들은 모건스탠리의 예측에 힘입어 연준이 내년 1월까지 연속으로 금리를 내릴 것이라는 데 베팅하고 있다.

... 위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조

신한 일일금융시장정보 원문

KOCHAM | 460 Park Ave. Suite 410 | New York, NY 10022 US

[Unsubscribe](#) | [Constant Contact Data Notice](#)